03□□□_□□□□□□17□ 14. 8. 12. □□ 5:16 Page 71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7호 2014.6. pp.71~100.

김수복 시의 기억 속에 내장된 '시림'과 '배고픔'의 구조

—시집 『외박』을 중심으로

The Meaning of 'Chilling' and 'Hunger' Embedded in the Memory in the Poems of Kim Soo Bok

이재헌(단국대 강사)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부조리한 시간 속에 고인 기억의 시림
3. 자기성찰로 흡인된 언어들
4. 삶으로의 회귀 본능을 환기시키는 시적 배고픔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김수복[1]의 시편들을 읽다보면 기억을 조율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목격된다. 1975년에 등단하여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시를 써오고 있는 시력의 결과일 것이다. 이는 그의 시세계가 현실을 천착한 기억들이 여전히 시리다는 것을 입증한다. 특히 '시림'의 감각은 총 63편의 시가

1 1953년 10월 7일 경남 함양 출생.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예술대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단국대 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 1975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겨울 숲에서」, 「청동그릇」, 「저물 무렵」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지리산 타령』(1977), 『새를 기다리며』(1988), 『모든 길들은 노래를 부른다』(1999), 『붉은 머리학의 사랑노래』(2003), 『사라진 폭포』(2003), 『우물의 눈동자』(2004), 『나 머저리』(2004), 『낮에 나온 반달』, 『또다른 사월』, 『달을 따라 걷다』(2008), 『외박』(2012) 등의 시집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현대 시인들의 시에 담긴 상징의 의미와 구조를 밝힌 평론집 『상징의 숲: 우리 시의 상징과 자아 동일성』(1999)을 간행한 바 있다. 김수복은 숲과 새와 별 등 고전적 서정의 본령인 자연물에 침윤된 시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시인이다. 제6회 서정시학 작품상, 제19회 편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03□□□_□□□□□□17□ 14. 8. 12. □□ 5:16 Page 72

수록된 시집 『외박』(창비, 2012)에서 기억의 결을 유지하며 절정을 이룬다. 그간 김수복의 '시림'의 의식은 얼어붙었던 독재시대의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서 숭고한 진실을 추구하는 고백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김수복의 '시림'을 넘어서려는 시적 투쟁은 현실과 죽음을 넘나드는 의식 속에서 일평생 지속되어 왔다. 때론 항구적인 정체성을 지닌 강인한 욕구보다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부딪쳐 주저앉은 웅크린 모습도 발견된다. 그러나 "시를 쓴다는 것이 진실로 인간의 원초적이고 영원한 조건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핍을 인정하는 것이다."[2] 또한 그의 기억의 뿌리는 투쟁과 갈등보다는 평화와 공존의 열정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변모를 보여 왔음을 주시해야 한다. 이러한 시적 '배고픔'은 확고한 시정신이 살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수복의 시는 일상적인 삶의 차원을 넘어 쓰라린 정신의 수련을 겪어야 했던 '기억'들이 무의식에 깊숙이 박혀있음을 엿보게 한다. 이러한 단련된 시적 진술은 이성을 통해 논리적으로 지양되거나 의지를 통해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어느 날 뭉텅 잘려져 나간 나무밑동처럼 단단하고 매끄러운 단면에서 보듯 지난한 삶의 균열과 불화의 문장들은 시적 '배고픔'의 근원으로 불온한 시대에 대한 비판력을 담지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해 변함없는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이 김수복 시의 기원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김수복의 시적 진술은 표면적일 뿐만 아니라 양심적 단면들이 '정의롭지 못한 현실'과 접촉함으로써 역설적인 힘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한 생명에서 따뜻한 영혼을 발견하려는 작업은 시인이 취해야 할 시적 전략으로 정밀한 기억의 미학을 길어 올리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의 시속에는 굴욕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의 운명으로부터 이생에 대한 결연한 시적 투쟁의 삶이 끊임없이 내장되어 있다.

2 옥타비오 파스, 김홍근 · 김은종 옮김, 『활과 리라』, 솔, 2005, 196쪽.

03□□□_□□□□□□17□ 14. 8. 12. □□ 5:16 Page 73

시인의 생의 공간을 둘러싼 '생명'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는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시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관점이다. 그의 진술 속에는 감춰진 삶의 비의를 탐문하는 높은 밀도의 언어들이 자리잡고 있다. 김수복은 '정의롭지 못한 현실'의 미묘한 균열이 도래하는 순간에 맞춰 시가 조우한다. 돌이켜보면 사람이나 사물과 가장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대상과 동등하게 눈높이를 맞출 때인 것을 눈여겨볼 만하다. 그의 시가 무의식에서 감지되는 심층적인 에너지와 맞닿아 '시적 배고픔' 속으로 이어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의 시세계는 소멸을 향해 빠르게 치닫고 있는 생생한 비극의 존재와 닿음으로써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계를 예감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진술에 귀를 기울도록 한다. 한편 그의 시가 '죽음'에 대해 깊은 공감과 사색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삶에 대한 치열한 대결 의지를 견지해 나아감으로써 점차 내면세계에 대한 천착으로 선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기억의 집요함이 '드러난 의식'과 '감춰진 무의식'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것은 존재의 변환에 대한 시인의 예리한 성찰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수복의 '정의롭지 못한 세계'에 대한 '자기 고투'는 불의와 반목하는 것으로 그가 살아온 시대적 상황을 감지하게 한다. 그의 시적 자리는 삶의 질서를 초과한 '정의롭지 못한 세계'가 이탈한 그 자리가 바로 그의 시가 발생하는 자리와 일치한다. 마치 나무는 질주하지 않지만 '상처의 기억'이 서서히 자라 제 역할을 다하여 결국 숲의 일원이 되는 결과물로 해석되는 것과 같다.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퍼져 끊임없이 생명의 양분을 흡입해 올림으로써 지속적인 생명력을 획득하듯이 김수복의 시는 직관 혹은 투명한 '자기 성찰'이라는 형식을 통해 '정의롭지 못한 세계'와 은근히 변함없이 투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타자가 된 시인의 기억들은 끊임없이 시적 '배고픔'의 대상이 됨으로써 시세계의 경계를 확장시켜간다. 한편 생생한 현재로서의 기억은 미래의 예감을 불러일으키는 삶에 대한 회귀의 순간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현존 속

03□□□_□□□□□□17□ 14. 8. 12. □□ 5:16 Page 74

에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껴안고 기억의 복원을 진지하게 탐색해 감으로써 원초적 시간에 도달한다. "시인은 깨어 있는 몽상을 사는 것이며, 특히 그의 몽상은 세계 속에서, 세계의 대상들 앞에서 머무는 것이다."[3] 그의 시어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자신의 언어에 갇혀 홀로 남는다 해도 시가 없는 만족은 있을 수 없음을 환기시킨다.

김수복의 시에서 핵심적 작용을 하는 것은 평이하면서도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언어로써 묵직한 통찰을 이끌어낸다. 자신과의 처절하고 지난한 싸움은 상실의 실상을 간파하고, 스스로의 내면으로 복귀하여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인간 존재에 대한 초극하는 삶의 강한 공명을 일으킨다. 이런 차원에서 그에게 기억은 이미 꾸었던 꿈이자 언젠가 도래할 미래이기도하다. 그의 시편들은 기억과 친밀하게 결합되어 상처와 고통의 흔적들이 시적 언어와 교감하여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 감성과 호응을 이루기도 한다. 왜냐하면 기억은 체험과 감각을 능동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유용한 시적 질료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항상 언어에 의해 형상화되고 주조된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가 가진 언어를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으며"[4] 또한 기억은 시인의 의식을 규정짓는 근원적인 계기로서 인식에 비해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를 내포한다. 또한 김수복의 시는 기억의 투시를 통해 투명한 관찰력과 고도의 집중력의 산물인 시적 현상을 새롭게 이끌어낸다. 다시 말해 상투성에 사로잡히지 않는 즉물적 관찰의 힘에 의해 집약된 것으로 내실을 거두고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기억은 지워버린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김수복의 시에서 기억이란 크고 작은 감각들을 생동감 있게 복원해 내는 기능을 하며 시적 진술을 통해 의식의 표면으로 솟아올라 순환한다. 그의 시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으로 전달되는 것은 '기억의 시림'이 단순히 뇌리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시적 배고픔'의 감각으로 변환되어 몸에 새겨진다는 것을

3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184쪽.
4 숀호머 지음, 김서영 옮김, 『라캉 읽기』, 은행나무, 2009, 133쪽.

03□□□_□□□□□□17□ 14. 8. 12. □□ 5:16 Page 75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그의 시편들은 무의식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기억들이 시적 작용으로 현재의 시간 속으로 용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수복의 시에서 시간은 고여 있기도 하고 질주하기도 하며 차갑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리움을 내장하고 있는 절실한 삶'을 시적 언어로 복원하려는 현상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시가 절절한 사연을 엮어내는 서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저력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시적 욕망이 발화하는 순간으로써 잊고 있었던 시간을 되살리게 하는 역동적인 자기 고투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시를 쓰는 젊은 세대는 '현실 과거'에서 경험이 배제된 '순수 과거'만 알고 있는 셈이고,[5] 앞으로 소멸되어 가는 기억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면 기억의 자질 또한 크게 변화될 것이다. 이질적 시간들의 뒤섞임 속에서 단단한 기억을 차지하고 있는 김수복의 시집 『외박』은 삶의 고통을 운명으로 여기고 묵묵히 감내하며 삶의 연장선상에서 대립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연민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시 세계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심화되어온 편이지만 억압적인 불의한 권력과의 질서에 대한 반발과 해체의 욕망을 내포한 이전 시집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간 현실의 응시에서 출발해서 자아의 내면에 침잠했던 김수복의 시는 점차 내면세계의 현상에 보다 집중된 시선의 응축을 보여준다. 시집 『외박』은 고뇌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존재의 본질을 투시하는 역동적 에너지가 주입되는 '깊숙한 긴장'을 느낄 수 있다. 고통과 상처로서의 삶을 자조적으로 바라보다가 그것을 존재의 필연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일상의 음울한 이면을 편안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유지한다.

---

5 박형준, 「우리시대의 '시적인 것', 그리고 기억」, 『창작과 비평』, 2007년 가을호, 408쪽.

03□□□_□□□□□□17□ 14. 8. 12. □□ 5:16 Page 76

2. 부조리한 시간 속에 고인 기억의 시림

인간의 사고 속에서 공간은 배제할 수 있으나 시간은 배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공간에 비해 시간은 인간의 존재와 의식을 규정짓는 근원적인 계기로서 공간에 비해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시를 쓴다는 것은 "시간들의 교차점, 시간들의 수렴점"[6]을 모색하는 행위다. 주체의 사유와 감각이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시에서 시간에 대한 기억이 드러나는 양상은 다양하다. 김수복의 시에서 그것은 '회상'이라는 기억의 양식이다. 과거의 시간에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기억의 구체성을 보장하는 공감을 확보한다. 그의 시는 시간에 대한 통찰과 정화되고 재생되는 기억이 실감을 부여한다. "시간은 바로 인간의 삶 자체의 구조이며, 내가 측정하는 어떤 것이기 이전에 나를 구성하는 어떤 것이다."[7] 시간의 형상화보다 더 역동적인 상상의 유희는 없을 것이다. 기억에 대해 생각할 때 시간의 어두운 지층은 요동하고 사유의 한계까지 그것은 확장되고 끓어오른다. "경험은 자연스러운 의식과 절대적 앎 사이의 대화이다. 자연스러운 의식은 그때마다 자신의 시대에 역사적으로 현존하는 정신이다."[8] 화자는 과거의 경험을 통한 생생한 현재로서의 기억이 다시 기묘한 기시감 속에서 내일의 예감으로 불러일으켜지는 회귀의 순간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름다운 생명 같은 가치는 현실에서는 영원성을 갖지 못하고 소멸하고 만다. 따라서 아래의 시편들이 목격되는 것이다.

이제 남은 인생 저 노을처럼 살아가자 우리,
피난민 한금순이

6 옥타비오 파스 지음, 김은중 옮김, 『흙의 자식들 외』, 솔, 1999, 210쪽.
7 테리 이글턴 지음, 김현수 옮김, 『문학이론입문』, 인간사랑, 2006, 133쪽.
8 마르틴 하이데거 지음, 신상희 옮김, 『숲 길』, 나남, 2010, 295쪽.

03□□□_□□□□□□17□ 14. 8. 12. □□ 5:16 Page 77

육십년 만에 만난 두 동생을 안고
삼팔선 같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다

—「서귀포 앞바다」 전문

인용시 「서귀포 앞바다」에서 시적 화자는 물결 더미 속에서 삶과 죽음을 응시하고 있다.

"이제 남은 인생 저 노을처럼 살아가자 우리,"에서 시적 화자는 믿음의 세계에서 배제된 다른 시간의 도래를 기대한다. "이제 남은 인생"은 지나간 "인생"을 철저히 체득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비의가 오롯이 담겨져 있음을 암시한다. "이제"에서 삶의 미묘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생은 지나간 시간을 경유함으로써만 남은 시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일상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는 시간 속에서 "남은 인생"은 충만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얼마 남지 않은 공백을 초래하는 시간을 드러내고 있다. 시적 화자는 시간의 회귀가 불가능한 현실을 통해 인생을 추궁하고 결단을 스스로 주문한다. 시적 화자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을 예감한다. 그리하여 시적 화자는 "이제 남은 인생"에 대한 끈질긴 욕망을 확인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그것은 도래한 "저 노을"이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노을"은 시대적 상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노을처럼" "살아가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을"이 '절망'이라는 사실이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우리 시대에 삭제되어가고 있는 인식론적 형상, 어떤 형태로든 이데올로기적인 것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살아가자"는 중대한 사태 변화에 대한 중후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피난민 한금순이"라는 이름의 경계를 둘러싸고 우리시대의 이념의 내전 상황이 개입되어 있다. 필연적으로 그것은 타자의 변증법을 통해 구축된 자기동일성의 세계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시림'은 견고

03□□□_□□□□□□17□ 14. 8. 12. □□ 5:16 Page 78

한 우리시대의 풍경을 구성하는 객관묘사라 할 수 있다. '시가 자신의 내적 배치를 통해 도래시키려 하는 개념의 순수성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존재의 탈—연결된 고독을 지시한다'[9] 고향 잃은 "피난민 한금순이"에게 "남은 인생"은 유일하게 주어진 현재밖에 없으며 "우리"의 박탈당한 시간에 내재한 강력한 불모의 삶을 응시하며 생의 끝까지 불모의 세계를 "노을처럼 살아가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적 화자는 세계의 시간 없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미래가 부재한 유일한 시간으로서의 현실과만 격투하려했던 희망 없이 흘려보낸 "육십년"을 의지 하지 않은 채 "두 동생을 안고" 돌파하려는 시적 절규가 내장되어 있다. '시간은 일상적인 개념에서 시간은 미래를 지향하는 현재이지만 숙명적으로 과거에 닻을 내린다.'[10]는 옥타비오 파스의 말이 생각난다. 이런 의지의 기저에 깔린 시적 무의식은 "삼팔선 같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다"에서 엿볼 수 있다.

내 모든 걸 너에게 바친다
내 말의 뿌리도
내 말의 흙도
내 말의 메마른 가슴도
내 말의 풍성한 사랑도
그 목을 바친다
꽃을 피우지 않고 바람이 되어 바친다
재를 피워 다시 꽃을 바친다

—「서풍이 되어」 전문

인용시 「서풍이 되어」에서 드러난 시적 화자의 "바친다"라는 기표에 담긴 아이러니적 긴장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뿌리", "흙",

9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조건들』, 새물결, 2007, 158쪽.
10 옥타비오 파스, 앞의 책, 79쪽.

03□□□_□□□□□□17□ 14. 8. 12. □□ 5:16 Page 79

"가슴", "사랑", "목", "바람", "재", "꽃"은 시인의 의지가 선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눈여겨볼 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시림'에 내재한 아이러니적 긴장이다. 이러한 세계의 아이러니는 "바친다"를 수락하는 지점에서 시적 화자의 '시림'이 시작된다. 시에서 지독히도 익숙한 동정적 시선을 투사하는 것은 화자의 시적 시선이겠지만 이러한 해석에서 실종되어 버리고 마는 것은 다름 아닌 "내 모든" 것이라는 것이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바친다"는 것은 시적 화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철저히 거세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일원론을 부정하는 닫힌 시간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존재를 전부 삭제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암시로 읽혀짐은 어떤 섬뜩함을 체득하게 된다. "시의 풍경은 시인의 관심과 기질을 반영하며, 시작의 무의식적 관성을 드러내는"[11] 표지이다. 시적 화자는 동일성의 욕망으로 본질적 자아를 찾아 나선 것이다. "내 말의 뿌리도/내 말의 흙도/내 말의 메마른 가슴도/내 말의 풍성한 사랑도/그 목을 바친다" 고 했다. 이는 의식의 실재에서 촉발되고 획득된 실감이란 간명하기 때문이다. 시적 화자는 의식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실감을 수용한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삶의 귀환이다.

사랑의 시체가 말했다

가장 잘 자란 나무 밑에는
가장 잘 썩은 시체가 누워 있다고

가장 큰 사랑의 눈에는
가장 깊은 슬픔의 눈동자가 있다고

11 김문주, 『소통과 미래』, 서정시학, 2006, 268쪽.

03□□□_□□□□□□17□ 14. 8. 12. □□ 5:16 Page 80

봄나무에게서 꽃이 피는 너에게

—「꽃이 피는 너에게」 전문

인용시 「꽃이 피는 너에게」는 "사랑"을 죽음의 반열에 놓았다. "사랑"은 스스로 존재하면서도 해석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적 화자의 죽음의 텍스트가 되고 있다. 그 죽음을 펼치면 사랑이 채워져 있음을 예감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시체"는 말할 수 없으나, "사랑의 시체"는 말할 수 있다고 진술한다. 무엇이 다른가? 이 시에서 뚜렷이 감지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사랑"이 있는 "시체"와 "사랑"이 없는 "시체"가 있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는 시적 화자의 제한된 관점을 통해 해석되고 경험된 개별적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사랑은 죽어야만 제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 "사랑"은 살아있는 동안은 말하지 않는다.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은 "시체"가 된 후에야 그가 실천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다.

살아 있을 때 몰랐던 것을 "사랑의 시체"를 목격함으로서 그제야 "가장 잘 자란 나무 밑에는 가장 잘 썩은 시체가 누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썩은 시체"에서처럼 시간의 매장 속에서 새로운 시간이 싹트는 것이다. "가장 깊은 슬픔의 눈동자가 있다고" 시적 화자는 고백함으로써 "가장 큰 사랑의 눈에는" 지울 수 없는 "사랑"의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이다. 거듭나기 위해 썩는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생동하는 구상화로 펼쳐 보이는 시 「꽃이 피는 너에게」는 상상력의 역동성으로 현상의 표층을 뚫고 존재의 초월적 의미를 포착해 낸다.

딱 한번,

사랑한다고

말해보았다

03□□□_□□□□□□17□ 14. 8. 12. □□ 5:16 Page 81

또 딱 한번,

내 영혼의 손으로

태양의 가슴을

어루만져보았다

—「그림자」 전문

인용시 「그림자」에서 시적 화자는 "딱 한번"을 반복한다. 마음의 흔적 중에서 사랑의 기억만큼 강렬한 것이 있을까. "딱 한번"을 통해 시적 화자의 마음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 시적 화자가 "태양의 가슴을/어루만져보았다"는 것은 충만한 사랑의 순간이라기보다 사랑을 통해 알게 된 마음의 '깨달음'에 해당한다. "사랑"은 결핍과 갈증인 채로 시적 화자의 삶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이는 시적 화자가 '진리'을 갈망하는 담담한 통찰과 인내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것이 하나의 떨림이 되고 긴장을 만들고 마침내 시적 성취로 상승되기까지는 그에게 머물지 않는 내적 각성이 필요했던"[12] 것이다, "내 영혼의 손으로"에서 '언어에서 존재의 무거운 그림자를 모두 벗어버릴 수 있다면 가장 순수하고 영원한 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13] "말해보았다"에서 시적 화자의 자기고백적인 성격이 강화됨을 실감할 수 있다. 절제의 기율을 유지하던 시적 화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깊은 상처를 동반한 "사랑"과 일체화된 공감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어루만져보았다"에서 존재의 경험은 그 심연의 깊이로 감히 내려서는 시적 화자의 한없

12 박덕규, 『문학공간과 글로컬리즘』, 서정시학, 2011, 127쪽.
13 이혜원, 『적막의 모험』, 문학과지성사, 2007, 190쪽.

03□□□_□□□□□□17□ 14. 8. 12. □□ 5:16 Page 82

이 드넓은 경지를 드러낸다. 근원의 탐사에서 시작하여 망설임 없이 존재의 극한까지 육박하는 「그림자」는 시적 화자가 초현실의 다층적 공간을 열어 보인다.

3. 자기성찰로 흡인된 언어들

김수복은 과격하고 극단적인 부정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지만 양심의 명령과 질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기억에 대한 내성이 강한 시인이다. 추억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은 얼마나 가난한 것인가 참된 행복이란 과거의 자취를 감싸 안고 있는 법이다. 김수복의 시는 이같이 쉽게 잊혀져가는 추억의 가치들을 회복시키는데 바쳐진다. 기억의 몽상은 깊어지면서 최초의 기억보다도 더 오래된 죽음의 기억과 숨결을 맞대고 있다. 김수복은 더 나아가 현실적 욕망에 가려져 있지만 아득히 행복감의 근원을 차지하고 있는 원형적 공간에 기억의 닻을 던져 넣는다. 기억과 원형적 상상력이 지향하는 나무, 구름, 슬픔, 감옥, 혁명, 저녁, 노을, 골목, 강물, 하늘, 별, 새, 추억, 그리움, 자유, 바다, 부활, 무덤, 죽음, 사랑, 밤길, 어머니, 천둥소리, 바람, 침묵, 허공, 눈발, 계곡, 햇살, 소낙비, 철교, 꽃잎, 적막, 자궁, 수평선 등을 나타낸 것이 시집 『외박』의 시편들이다.

김수복의 시에는 외적인 '혁명'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정의롭지 못한 세계'에 대해 별다른 부정이나 저항 없이 현실을 수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예술혼과 삶의 방향은 배타적이기보다 삶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계의 뿌리 깊은 신앙의 정신은 시를 통해 훨씬 강하고 이상적인 자아와 직면하게 했다고 볼 것이다. 주목할 것은 섬세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그의 시에서 가부장제의 억압과 모순이 극심하게 작용했던 그의 성장배경이 중요한 배경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시편들은 기억의 무늬들이 자유롭게 떠도

03□□□_□□□□□□17□ 14. 8. 12. □□ 5:16 Page 83

는 추억이 숨을 쉬는 유기체의 공간으로 원형적 경험이 상상력의 작용으로 어우러져 나타난다. "감각과의 소통은 대개 더디지만 때로 은밀하게 유쾌하다. 은밀하고 유쾌한 소통은 상투적인 소통을 기피한다."[14] 실증적 의미를 초월하는 상상력의 역동적 작용에 의해 고독의 조각들이 은밀한 교감을 이루며 발광체로 발현한다.

좀더 쉬었다 갈게요, 하느님!

늦게 핀 꽃들도 꽃이잖아요

골목 안, 평생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핀

이 개망초꽃 두고 갈까요?

저 분도 바르지 않은 눈물 보이지 않으세요?

전 이 골목 안, 저 오래된 국숫집 담 밑에 핀

어머니 살아 돌아오신 꽃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느님 좋아하시는 사람꽃도 피었네요

아직도 갈 곳 없어 다가오는 구름도,

14 신형철,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9, 266쪽.

03□□□_□□□□□□17□ 14. 8. 12. □□ 5:16 Page 84

아, 그 아득한 첫사랑과 파도도 아직 피어 있잖아요

저 해가 바다 너머 고요히

잠들기 전엔 가지 않을래요

아무리 부르셔도 이 골목 안

저 사람꽃 질 때까지

복종하지 않을래요

하루만,

딱 하루만 더 사람꽃으로 피어 있을래요!

—「외박」 전문

인용시 「외박」은 영원한 '그리움'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보편적인 속성을 그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언어를 통해 영혼과의 만남의 신비가 진실을 이루고 있다. 욕망의 이론들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환상이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역설하지만, 시적 화자가 존재의 궁극적 가치로서 "하느님!"을 통해 애잔함을 미적 장치로 유발시키고 있다. 하지만 소통에 그치지 않고 명징한 깨달음을 제시한다. 그것은 "좀더 쉬었다 갈게요,"에서다. 시적 화자의 자아에 대한 치열한 탐색과 창조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은 것, 그리고 영원히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난다."[15] "늦게 핀 꽃들도 꽃이잖아요"에서 직설을 피하고 은유의

03□□□_□□□□□□17□ 14. 8. 12. □□ 5:16 Page 85

묘미를 살린 표현상의 특징 역시 절망과 탄식이 아닌 절제된 감정을 보여준다. "골목 안, 평생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핀/이 개망초꽃 두고 갈까요?"에서 시적 화자는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물음 앞에 상실된 현실에 대한 예리한 자각이 깃들어 있는데 연민과 포용의 삶을 체득하며 살고자하는 면모를 느낄 수 있다. "저 분도 바르지 않은 눈물 보이지 않으세요?/ 전 이 골목 안, 저 오래된 국숫집 담 밑에 핀/어머니 살아 돌아오신 꽃"에서 시적 화자의 현실에 대한 그의 번민과 좌절을 엿볼 수 있다. 꿈과 현실의 거리를 여실히 증명하지만 연민과 언어와 우주가 한데 모여 하나의 진실을 이루고 있다.

인간의 삶이란 결국 끝없이 순환하는 원환의 구조를 갖는데 감정의 분출과 억제 사이에서 놀라운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하느님 좋아하시는 사람꽃도 피었네요" 사적 화자는 일상에서 부대끼며 얻어낸 진실을 값지게 드러낸다. 소박하지만 확고한 신념을 읽을 수 있다. "아직도 갈 곳 없어 다가오는 구름도,/아, 그 아득한 첫사랑과 파도도 아직 피어 있잖아요"에서는 삶의 열정이 내면의 호흡을 통해 편견 없이 상호 공존하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오랜 세월 끝에 생을 돌아보면 상처와 오욕의 기억마저도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시적 화자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저 해가 바다 너머 고요히/잠들기 전엔 가지 않을래요"에서 세월은 상처를 만들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는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시적 화자의 깊은 포용력을 엿볼 수 있는 "아무리 부르셔도 이 골목 안/저 사람꽃 질 때까지/ 복종하지 않을래요"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바라본 존재의 심연이 드러난다. "하루만,/딱 하루만 더 사람꽃으로 피어 있을래요!"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접근해보자면 세상에서 소외된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연대의식을 확인하게 되는데 「외박」은 불화했던 시대와의 관계에 대한 점진적 화해가 드러낸다.

---

15 페터 비트머 지음, 홍준기 · 이승미 옮김, 『욕망의 전복』, 한울, 2009, 93쪽.

03□□□_□□□□□□17□ 14. 8. 12. □□ 5:16 Page 86

하느님! 이미 참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벚꽃사이로 운구 지나와

산역 지낸 후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떨어져 누워 덮는

새벽 이불도 좋고요

적막의 베개도 좋고요

온갖 새들과 벌레들의

울음방이 되었어요

숨어서 늦게 들어오는 별들에게도

벗이 되어 인생의 하룻밤을 보내고

돌려서 돌려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죄 없는 한 사람 가까이 올라와

03□□□_□□□□□□17□ 14. 8. 12. □□ 5:16 Page 87

속죄의 방에서 하룻밤

자고 올라갔습니다

—「하느님의 여인숙」 전문

인용시 「하느님의 여인숙」은 시적 화자가 보여주는 이미지나 관념들을 특별한 형이상학이나 종교적 차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시적 화자의 특유의 예감과 감응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시인은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으면 하고 바랐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시인은 욕망하는 자이다. 결과적으로 시는 욕망이다. 그러나 그 욕망은 가능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며 사실인 듯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며"[16] 시간과 공간과 그 시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물들의 기억 속에서 생은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가정을 해볼 때 시적 화자는 사물의 기억으로 가득 찬 원형적 세계 안에서 사물과 타인의 꿈을 제 꿈으로 꾸며 살아간다. 시적 화자가 사물의 에너지를 몸속에 새기는 한, "하느님! 이미 참회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음미해볼 때 예감과 감응의 여러 시간을 동시에 산다. 기억이 세계의 어떤 소멸되지 않는 원형과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적 화자의 잠재적이고 중층으로 존재하는 고백 속에서 여전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고백은 시적 화자의 생생한 기억이기도 하다. "벚꽃사이로 운구 지나와/산역 지낸 후/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에서는 누구에게나 선명하게 각인된 기억이 있다. 여기서 그려지는 풍경도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기억의 흔적이라 볼 수 있다.

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어라 할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라

16 옥타비오 파스, 앞의 책, 83쪽.

03□□□_□□□□□□17□ 14. 8. 12. □□ 5:16 Page 88

는 말도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이제 떨어져 누워 덮는/새벽 이불도 좋고요/적막의 베개도 좋고요/온갖 새들과 벌레들의/울음방이 되었어요”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얼룩진 온갖 자취들이 살아난다. 현상의 단면에서 존재의 본질을 투시하는 깊숙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숨어서 늦게 들어오는 별들에게도/벗이 되어 인생의 하룻밤을 보내고/돌려서 돌려서 보내드릴게요”에서 시적 화자는 삶의 고통을 운명으로 여기고 묵묵히 감내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오늘도 죄 없는 한 사람 가까이 올라와/속죄의 방에서 하룻밤/자고 올라갔습니다”에서 시적 화자는 자연스럽게 자아를 성찰하며 모든 번뇌와 고뇌를 육탈시킨다. 이 시의 진정한 묘미는 ‘슬픔을 나타내는 자아를 직면’하는 데 있다. 시적 견인의 긴장감으로 인해 숨어 있지만 “예술가는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 의식과 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품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을 반복해서 상징적으로 분출한다.”[17] 시적 화자는 감응하고 있는 에너지인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해가 빨려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텃밭에 뱀이 기어들어간 밭고랑

소나기 지나간 뒤
황톳길을 끌고 가는 노을의

고리가 숨어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곳

—「배꼽」 전문

17 이창재, 『프로이트와의 대화』, 학지사, 2010, 147쪽.

03□□□_□□□□□□17□ 14. 8. 12. □□ 5:16 Page 89

인용시 「배꼽」에서 시인의 예감이란 생생한 현재로서의 기억이 다시 미래의 예감으로 불러일으켜지는 어떤 '회귀의 욕망'을 보여준다. "우리가 언어를 말한다기보다는 언어가 우리를 통하여 말하는 것이다."[18]고 한 라캉의 말이 떠오른다. '배꼽'은 원형적 시간이기도 하다. 여기서 "그곳"은 살아있는 것들을 향한 열망의 굴절되고 은폐된 시간은 걷잡을 수 없이 소멸을 향해 빠르게 치닫고 있다. 죽음을 탐색한다는 것과 허무를 느낀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 "해가 빨려들어가서 나오지 않는"의 "그곳"과 "소나기 지나간 뒤"의 "그곳"이 그렇다. "그곳"은 현실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 현실에 거주하는 것, 다시 말해 '현실 자체'이다. 시작 화자는 끊임없이 현실을 직시하고자 하는 존재이다. 시는 '존재로 들어가기'[19] 때문이다. "배꼽"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언어이다. 시적 화자는 존재의 극단에 있는 언어를 내면으로 복귀하여 무의식의 언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시적 화자는 "황톳길을 끌고 가는 노을" 즉 자신의 의지는 거의 개입되지 않는 시간의 거대한 바람에 떠밀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망설임 없이 "그곳"의 품에 자신을 맡길 거라는 사실을 '예감'한 것이다. "시인의 말은 시적 교감으로 육화 된다."[20] 시적 화자는 "고리가 숨어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어떤 힘과 절묘하게 결합되는 것이다.

4. 삶으로의 회귀 본능을 환기시키는 시적 배고픔

기억의 뿌리로부터 상상력을 끌어올려 자유로움과 창조적인 본성을 자극하는 김수복의 시는 기억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원형적인 공간이다. 또한 기억이 현실적으로 병들어가는 세계의 요구에 예속되지 않은 채 독자

18 숀호머, 앞의 책, 85쪽.
19 옥타비오 파스, 앞의 책, 149쪽.
20 옥타비오 파스, 앞은 책, 148쪽.

03□□□_□□□□□□17□ 14. 8. 12. □□ 5:16 Page 90

적인 회귀 정신과 본능적 예술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았다. 그의 시를 이끌어가는 지배적인 정서는 기억으로의 '회귀 본능'이다. 인간은 유한한 운명을 견디면서 '영혼의 배고픔'의 폭을 확대해가며 살아가야 할 연약한 존재들이다. 내면의 성찰에 치중하는 본질적 자아에 대한 지고한 도덕적 실천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김수복 시에 드러난 '영혼의 배고픔'은 여전히 현재적 의미를 갖는다. 김수복의 시는 감정의 분출과 억제 사이에서 놀라운 긴장감을 보여준다. 시적 생존을 위한 부단한 투쟁 끝에 배고픔의 운명을 향해 하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수복의 시적 '배고픔'은 늘 '현재'이다. 그의 삶은 근본적으로 소멸과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억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강한 공명을 일으킨다. 생과 사가 맞물려 순환하고 있음을 통찰한 시인은 시적 배고픔의 현상에 대해 주관을 최대한 절제하고 객관적 접근을 행한다. 시적 배고픔에 대한 치밀한 내성을 바탕으로 하는 김수복의 시는 소멸하는 운명에 대한 승화된 통찰에 이르지만 결코 허무주의에 침식되지 않고 상승의 꿈을 잃지 않는 강한 삶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김수복의 의지력은 수십 년의 시력에 이르는 그의 시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것은 긴장감의 결정체라 할만하다. 시를 절제와 서정의 미학으로 실현시킨 데에서 진정성의 미적 실천이라는 김수복 만의 시의 초석을 확인하게 된다. 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먼동」을 살펴보겠다.

드디어 온 몸속이 검게 타올라
드디어 죄 없는 무기수들이
오래된 감옥에서 줄지어 나오기 시작한다
붉은머리학들도 해의 알을 품고 날아오른다

—「먼동」 전문

03□□□_□□□□□□17□ 14. 8. 12. □□ 5:16 Page 91

인용시 「먼동」에서는 시적 화자가 살아온 긴 여정을 내다볼 때 '그리움'에 대한 절실한 감정이 드러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드디어"의 반복을 지적할 수 있다. 4행으로 구성된 진술이 긴밀한 호응을 이루는 것은 1행에서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묘사, 2행에서의 최대한 절제되고 암시적인 정서적 고양에 이어 3행에서 주체와 객체의 동일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4행에서의 내면의 심각한 번민과 갈등이 의지와 길항하는 내면의 소리를 효과적으로 표출해 냈다. 시적 화자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전이과정을 거치면서 풍경의 연속성이 야기하는 속도감은 어떤 설명의 진술보다 더 강렬하게 비애의 정서를 유발시킨다. '글을 쓰는 사람은 영감(illumination)을 추구한다.'[21]는 파스칼 키냐르의 말이 떠오른다. 시적 화자의 직관적인 통찰은 "드디어 온 몸속이 검게 타올라"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거듭 새겨볼수록 암담한 현실에서 이를 수 있는 정신적 높이는 희생적인 실천과 상응한다는 인식이다. "드디어 죄 없는 무기수들이"에서 시적 화자는 내면의 번민과 운명에 대한 고뇌를 극복하게 한 것이다. 꿈과 열정은 "오래된 감옥에서 줄지어 나오기 시작한다" 시적 화자의 이러한 꿈과 열정이 고조되면서 "붉은머리학들도 해의 알을 품고 날아오른다"는 진술은 시적 화자가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열망'을 품고 있다는 확고한 결의를 보여준다.

무덤에게서
무덤을,
적막에게서
적막을 불러내어

먼 옛날의,

21 파스칼 키냐르, 송의경 옮김, 『혀끝에서 맴도는 이름』, 문학과지성사, 2005, 118쪽.

03□□□_□□□□□□17□ 14. 8. 12. □□ 5:16 Page 92

먼 옛날의 옛날에게서,
먼먼 옛날의 자궁 속으로 돌려보낸다

—「호명」 전문

인용시 「호명」에서 시적 화자는 죽음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아 속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무덤에게서/무덤을,"에서처럼 죽음이 삶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무덤이란 실존이 말하기 내에서의 변모를 통한 존재의 어떤 상징세계에 도달하는 순간이며"[22] 일상적 의식의 저편에서 탄생과 죽음이 소멸과 재생이 역전되는 광경을 목도할 수 있는 극도의 주관성과 개방된 의식이야말로 풍요롭고 역동적인 존재의 현상을 인식한다. 삶과 죽음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죽음은 삶 안에서 즉 "적막에게서 적막을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태어남이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면 죽음역시 태어남을 끌어안고 있다 시적 화자에게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죽음은 인간 삶의 종착이아니라 반대로 완성된 삶의 일부라는 것이다. "먼 옛날의, 먼 옛날의 옛날에게서,"처럼 산다는 것은 앞으로 향해 회귀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낯선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이러한 나아감은 시적 화자 자신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시적 화자가 "먼먼 옛날의 자궁 속으로 돌려보낸다"고 한 것은 산다는 것은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시인은 그것을 응집된 시선의 명상 속에서 창조한다.'[23]고 했다. 이렇게 '무덤'은 비극적인 존재감의 무의식적 표현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회귀 과정을 거치면서 '호명'으로 비유된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력은 문장의 긴장감 넘치는 호흡 속에 실감나게 드러난다.

22 알랭 바우디 지음, 장태순 옮김, 『비미학』, 이학사, 2010, 226쪽.
23 가그통 바슐라르, 안보옥 옮김, 『불의 시학의 단편들』, 문학동네, 2004. 127쪽.

03□□□_□□□□□□17□ 14. 8. 12. □□ 5:16 Page 93

죽고

다시 사는 일이란

아침에서 저녁으로 건너가는,

이 나무에게서 저 나무에게로 건너가는,

나의 슬픔에서 너의 슬픔으로 건너가는,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에게서 너에게로

죽음에서 이승으로 건너오는 일인 걸

새벽 눈발을 맞으며

새벽 산허리에 감기는,

훨훨, 죽음을 넘나드는 눈발이 되어

한 며칠 눈사람이 되어 깊이 잠드는 일인 걸

—「겨울 메아리」 전문

끊임없이 삶으로의 '회귀의 본능'을 환기시키는 인용시 「겨울 메아리」에서 "죽음"은 인간이 삶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의미의 터전으

03□□□_□□□□□□17□ 14. 8. 12. □□ 5:16 Page 94

로 가꾸고 기획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의 지반이다. "죽음"은 "죽음" 자체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감성으로 흡입되어 삶의 배경이 된다. 그러므로 삶의 시간 속에서 "죽음"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고뇌하며 세계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삶답게 하고 지속적으로 시간성을 부여하는 존재지평이다.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죽음"은 인간 삶의 결핍이 아니라, 반대로 삶을 완성시킨다. 산다는 것은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낯선 것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진은 우리 자신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다."[24] "죽음"이 삶에 시간성을 부여하는 존재지평이고 "죽음"을 아는 것이 삶을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죽고/다시 사는 일이란/아침에서 저녁으로 건너가는,"에서처럼 시적 화자는 현실적인 존재와 우주적인 생명과의 일원론적인 연속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죽음"의 세계야 말로 현실의 삶의 지배원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게서 저 나무에게로 건너가는,/나의 슬픔에서 너의 슬픔으로 건너가는," 것이라고 시적 화자는 진술한다. 원형의 시간을 사는 화자에게 시간은 찰나이자 영원이다. "너에게서 나에게로/나에게서 너에게로"에서 시적 화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들을 허무는 원형의 상상력과 만난다. "죽음에서 이승으로 건너오는 일인 걸"에서 시적 화자는 삶의 욕망이 죽음의 심연까지 침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새벽 눈발을 맞으며"에서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유롭고 천진한 영혼일수록 추억의 곳간 속으로 성큼 들어가기 쉽다. "훨훨, 죽음을 넘나드는 눈발이 되어"에서 이때 "죽음"은 고통과 억압의 현실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지닌다. "한 며칠 눈사람이 되어 깊이 잠드는 일인 걸"에서 풍부한 원초적 체험의 장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인도한다. 그 이상

24 옥타비오 파스, 앞의 책, 197쪽.

03□□□_□□□□□□17□ 14. 8. 12. □□ 5:16 Page 95

향의 기억은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기 이전의 동질감과 원초적인 충족성에 가까운 것이다. 시적 화자의 시선이 "죽고 다시 사는 일"에 대한 내밀한 기억으로의 확충은 '회귀 본능'의 세계로 응축되는 구심력적인 수렴의 면모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5. 나오는 말

현실과 이상 사이의 단절과 괴리가 드러나더라도 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때 말로써 다 표현 할 수 있다면, 행갈이 된 글로 옮겨놓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의 언어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읽고 나서 다시 읽게 되는 시들은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김수복의 시는 생의 체험들을 언어 속에 깃들게 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그 순간을 되살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는 지나온 시대의 탄압에 대한 투쟁의 아픔이 기억을 통해 우회적이지만 명확하게 반영한 충만한 시적 역량을 긴장의 순간으로 그려낸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속에 깃들게 함으로써 말해야 하는 것들의 파장을 끊임없이 일으킨다, 이는 그의 시에 내장된 '영혼의 배고픔'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그의 꾸밈없고 진솔한 시선과 감각은 그의 시가 내포한 생명력의 원천이요 동력이라 할 만하다. 김수복 시는 기억 속에 내장된 긴장과 무의식을 무심한 형상으로 그려내지만 편협한 현실에 맞서는 시인의 본원적인 가치를 표상하는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간절한 '시적 배고픔'은 여전히 현실 속에 있는 존재의 주관성을 보여준다. 특히 그의 언어들은 산업화 시대의 부조리한 70년대와 군부독재시대의 절정을 이룬 80년대를 거치면서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은밀한 질타와 비판을 하고 있다. 눈치 채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결정적인 시적 요소가 된다면 김수복의 시는 이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

03□□□_□□□□□□17□ 14. 8. 12. □□ 5:16 Page 96

니라 그러한 진술들이 자신을 향하게 함으로써 언어 자체의 힘을 실현하려는 그의 욕망을 역설적으로 엿볼 수 있다.

김수복은 거칠고 긴 호흡 대신 간결하고 절제된 언어를 통해 형상이 환기하는 의미의 깊이를 성취한다. 이는 시인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시사점을 보여준다. 기억을 단순한 서술의 언어로 그려내지만 거듭 새롭게 해석되는 것은 시인의 의식과 태도를 극적으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치욕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삶과의 절실한 교감이 지극한 평화로움으로 형상화 한다. "자기 주변의 사람과 같이 체험한 내용이 아니어서 좀처럼 보편화하기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 체험을 부정하면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해 버리는 불가해한 상황을 경험했을 때 한 개인은 이러한 경험을 평생 화두로 짊어질 수밖에 없다"[25] 김수복의 시편들은 점차 시대적 문제 중심에서 살아있는 욕망과 만난다. 마치 마주하고 있으면 벌거벗은 정서 같은 것이다. 끊임없이 새롭고 다양한 모색이 나타나는 그의 시세계를 견인하는 것은 고통과 치욕으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삶속에 흡수하려는 태도일 것이다. 김수복의 시편들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상처받고 신음하는 생명이 존재하는 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희생의 담보도 마다하지 않는 시적 결속력이다. 궁극적으로 김수복의 시는 자기 본위의 유폐된 개인을 넘어서려는 존재들의 소통과 연관되어 있다.

김수복의 시는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구별되는데, 그의 시가 계속해서 제기하는 문제는 기억 속에 내장된 '시림'과 시적 '배고픔'이다. 이는 시적 개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긴밀한 연관 관계를 통해 시세계를 확대 심화시키는 호존성을 갖는다. 그의 시선이 온화하고 유연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특유의 엄격성과 정직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외

25 류보선, 『경이로운 차이들』, 문학동네, 2002. 342쪽.

03□□□_□□□□□□17□ 14. 8. 12. □□ 5:16 Page 97

적인 요소로서 그에게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 향수를 일으킬 때 가장 강렬한 시심을 작동시킨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다. 여행이란 경험이나 소재의 확산을 가져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내면의 뿌리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김수복 특유의 시적 예감과 감응의 폭넓은 삶의 제공은 궁극적 차원에서 자신의 감각과 현재의 거리감을 통찰하게 한다. 이로써 김수복은 인간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체험의 가치와 욕망으로 환기 시킨다. 절제와 긴장이 지배적인 김수복의 시편들은 자아를 압도하는 거대한 존재를 분명하게 체감하고 있다. 그의 시에서 영혼의 뿌리를 느끼게 하는 운명의 절대성을 실감하게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신을 이끌어가는 삶의 긴 여정을 통한 '기억의 시림'과 '시적 배고픔'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창조적 흡인력을 갖게 한다. 그럼으로써 김수복의 시편들은 삶과 죽음이 절묘하게 화합되는 순간마다 간절한 기도와 같은 시적 열망으로 근원적인 안정감을 획득해간다.

03□□□_□□□□□□17□ 14. 8. 12. □□ 5:16 Page 98

참고문헌

1. 시집

김수복, 『외박』, 창비, 2012.

2. 기본자료

김문주, 『소통과 미래』, 서정시학, 2006.

박덕규, 『문학공간과 글로컬리즘』, 서정시학, 2011.

박형준, 「우리시대의 '시적인 것', 그리고 기억」, 『창작과 비평』, 2007년 가을호.

류보선, 『경이로운 차이들』, 문학동네, 2002.

신형철,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9.

이창재, 『프로이트와의 대화』, 학지사, 2010.

이혜원, 『적막의 모험』, 문학과지성사, 2007.

옥타비오 파스, 김은중 옮김, 『흙의 자식들 외』, 솔, 1999.

옥타비오 파스, 김홍근 · 김은종 옮김, 『활과 리라』, 솔, 2005.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가그통 바슐라르, 안보옥 옮김, 『불의 시학의 단편들』, 문학동네, 2004.

테리 이글턴, 김현수 옮김, 『문학이론입문』, 인간사랑, 2006.

숀호머, 김서영 옮김, 『라캉 읽기』, 은행나무, 2009.

마르틴 하이데거, 신상희 옮김, 『숲 길』, 나남, 2010.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조건들』, 새물결, 2007.

알랭 바우디, 장태순 옮김, 『비미학』, 이학사, 2010.

페터 비트머, 홍준기 · 이승미 옮김, 『욕망의 전복』, 한울, 2009.

파스칼 키냐르, 송의경 옮김, 『혀끝에서 맴도는 이름』, 문학과지성사, 2005.

03□□□_□□□□□□17□ 14. 8. 12. □□ 5:16 Page 99

Abstract

The Meaning of 'Chilling' and 'Hunger' Embedded in the Memory in the Poems of Kim Soo Bok

—Centering around Poetic Works, Sleeping Out

Lee, Jae Heon

The poems of Kim Soo Bok are largely distinguished into two tendencies. The questions which his poems have raised, are 'chilling' embedded in the memory and poetic 'hunger'. He has fulfilled the depth of meaning which the shape awakens through the concise, restrained language instead of harsh, long breath. His earnest 'poetic huger' shows the subjectivity of existence still consisting in reality. In particular, his languages confidentially rebuke and criticize about the reality which is not righteous, going through the irrational 70's of industrial age and the 80's which climaxed in military dictatorship. In this sense, the implication is shown which should not be overlooked, in grasping the whole story of the poet. The memory is depicted by the simple, narrative language, but can be repeatedly, novelly interpreted, because the meaning of real existence is fulfilled by dramatically showing the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the poet. By doing so, the earnest communion with life where the humiliation and agony should be endured, is embodied into true peace. The poems of Kim Soo Bok have increasingly met the living desire in the center of the periodical problems. Leading his poetic world in which the

03□□□_□□□□□□17□ 14. 8. 12. □□ 5:16 Page 100

continuously new and various seeking appears, is the awareness about the hard life as an agony and humiliation, and the attitude to absorb it into life. What can be recognized in his poems is poetic cohesion that does not refuse any security of sacrifice to bring about peace, as long as the injured, groaning life exists. Ultimately, the poems of Kim Soo Bok are connected with the communication of the existences trying to pass over the self-centered individual confined.

주제어: 기억(memory), 죽음(death), 소통(communication), 죄(sin), 인생(life), 사랑(love), 영혼(spirit), 성찰(introspection), 사람(person)

논문 접수일 2014. 05. 09. | 논문 심사일 2014. 05. 23. | 게재 확정일 2014. 06. 16.